

25. 사동 표현하기

25강에서는...

- 1) 사동 조동사 'ให้ (하이)'를 알아봅시다.
- 2) 사동 조동사 'ทำให้ (탐 하이)'를 알아봅시다.
- 3) 태국어의 문장 부호 'ฯ (마이야묵)'의 활용을 알아봅시다.

<태국의 문화> 태국의 코끼리

1. 사동 조동사 'ให้ (하이)'

ให้ (하이): ~하게 하다

- ให้ (하이) + {주어 + 동사}

- 사동자 = 사람
- 피사동자 = 사람
- 의도성 O

ช้าง	차-ㅇ	코끼리
ศูนย์	쑤-ㄴ	0, 중심, 센터
อนุรักษ์	아누락	보호하다, 보존하다, 보전하다

ดิฉันแนะนำให้เขาไปดูช้างที่เชียงใหม่

(디찬 네남 하이 카오 빠이 두- 차-ㅇ 티- 치-양마이)

[EBS 초급 태국어]

: 저는 그가 치앙마이에 가서 코끼리를 보도록 소개했어요.

ทำไมต้องเป็นเชียงใหม่ครับ

(탐마이 떠-ㅇ 뽀 치-앙마이 크랍)

: 왜 치앙마이여야 했나요?

เพราะที่เชียงใหม่มีศูนย์อนุรักษ์ช้างค่ะ

(프려 티- 치-앙마이 미- ศูนย์ อนุรักษ์ ช้าง ค่ะ)

: 치앙마이에 코끼리 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이에요.

สนามบิน	싸나-ㅇ 빈	공항
มารับ	마- 랍	맞이하러 오다
ไปรับ	빠이 랍	마중 가다

พรุ่งนี้คุณมารับผมที่สนามบินได้ไหม

(프룽นี- 쿤 마- 랍 폼 티- 싸나-ㅇ 빈 다이 마이)

: 내일 당신은 공항에 저를 마중 나올 수 있나요?

ได้ค่ะ คุณจะให้ไปรับกี่โมง

(다이 카, 쿤 짜 하이 빠이 랍 끼- 모-ㅇ)

: 가능해요. 몇 시에 마중가면 되나요? (몇 시에 마중 가도록 할 건가요?)

ผมจะลงเครื่องประมาณ 4 ทุ่ม

(폼 짜 룡 크르-앙 뿌라마-ㅇ 씨- 툼)

: 저는 밤 10시쯤 비행기에서 내릴 거예요.

[EBS 초급 태국어]

*ให้ (하이): 주다

-ให้ (하이) + 목적어¹ + 목적어²: 목적어²에게 목적어¹을 주다

กล้วย	กล้วย-아이	바나나
ขนม	카놈	과자

ที่ศูนย์อนุรักษ์ช้างคุณทำอะไรบ้างคะ

(Ei- 수-ㄴ 아누락 차-ㅇ 쿤 탐 아라이 바-ㅇ 카)

: 코끼리 보호센터에서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ผมให้กล้วยช้าง

(폼 하이 กล้วย-아이 차-ㅇ)

: 저는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주었어요.

น้องได้ขนมมาจากไหน

(너-ㅇ, 다이 카놈 마- 짜-ㄱ 나이)

: 애야, 어디에서 과자를 얻어 왔니?

พี่สาวให้ขนมผมครับ

(피- 싸-우 하이 카놈 폼 크랍)

: 누나가 저에게 과자를 주었어요.

2. 사동 조동사 'ทำให้ (ตำ หาย)'

ทำให้ (ตำ หาย): ~하게 하다

- ทำให้ (ตำ หาย) + {주어 + 동사}

- 사동자 = 사람, 동물, 사물
- 피사동자 = 사람, 동물, 사물
- 의도성 ○ / 비의도성 ○

น่ารัก	น่า- 락	귀엽다
ความสุข	쾌-□ 속	행복

ศูนย์อนุรักษ์ช้างเป็นอย่างไรบ้างคะ

(쑤-ㄴ 아누락 차-○ 뻔 야-○라이 바-○ 카)

: 코끼리 보호센터는 어땠나요?

ช้างน่ารักทุกตัว ช้างทำให้ผมมีความสุขครับ

(차-○ 나- 락 툅 두-아, 차-○ 탐 하이 폼 미- 쾌-□ 속 크랍)

: 모든 코끼리가 귀여웠어요. 코끼리는 저를 행복하게 해요. [사동자 = 동물, 비의도성]

เสียง	씨-앙	소리
ตกใจ	똑 짜이	놀라다
แตก	쾌-□ 속	깨지다, 부서지다

[EBS 초급 태국어]

เสียงอะไรคะ ตกใจหมดเลย

(씨-앙 아라이 카, 똑 짜이 뭇 르-이)

: 무슨 소리인가요? 엄청 놀랐어요!

ขอโทษครับ ผมทำให้แก้วแตก

(커-토-스 크랍, 폼 탐 하이 깨-우 때-)

: 미안해요, 제가 잔을 깨뜨렸어요. [피사동자 = 사물, 비의도성]

เตียง	띠-앙	침대
นอนหลับ	너-ㄴ 랍	잠자다

เตียงตัวนี้จะทำให้คุณนอนหลับสบาย

(띠-앙 뚜-아 니- 짜 탐 하이 쿤 너-ㄴ 랍 싸바-이)

: 이 침대는 당신이 편안히 잠들게 할거예요. [사동자 = 사물, 의도성]

ผมอยากแนะนำให้ซื้อเตียงตัวนี้

(폼 야- 껀남 하이 쓰- 띠-앙 뚜-아 니-)

: 저는 이 침대를 사도록 권하고 싶어요.

3. ๑ (มา이야มุด)'의 활용

① 단수의 복수화 [구어/반구어]

เด็ก ๑ ทำให้ผมหัวเราะ

(뎅뎅 탐 하이 폼 후-아려)

: 아이들은 저를 웃게 만들어요.

[EBS 초급 태국어]

ผมจะพาน้อง ๆ ไปกินข้าว

(폼 짜 파- 념너-ㅇ 빠이 긴 카-우)

: 제가 동생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갈게요.

② 의미의 강조 [구어]

ดิฉันอยากอยู่ที่นี้มานาน ๆ

(디찬 야-ㄱ 유- 티-나- 난나-ㄴ)

: 저는 이곳에 오래 오래 있고 싶어요.

ทำยังไงพูดภาษาไทยเก่ง ๆ

(탐 양 응아이 푸-ㅅ 파-싸- 타이 켕켕)

: 어떻게 해야 태국어를 잘 말할 수 있을까요?

③ 의미의 약화* [구어]

พรุ่งนี้คงร้อนมาก ใส่เสื้อบาง ๆ มานะ

(프룽니- 쿡 러-ㄴ 마-ㄱ, 싸이 쓰-아 방바-ㅇ 마- 나)

: 내일은 아마 많이 더울 테니, 얇으스름한 옷을 입고 오렴.

หน้าเขาจะแดง ๆ เวลาพูดต่อหน้าหลาย ๆ คน

(나- 카오 짜 당대-ㅇ 웨-ㄹ라 푸-ㅅ 떠- 나- 라이 라-이 콘)

: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은 붉으스름하다.

4. 대화: 사동 표현하기

น้ำ: ที่เชียงใหม่มีศูนย์อนุรักษ์ช้างค่ะ

(나-ㅁ) (티- 치-앙마이 마- 쑤-ㄴ 아누락 차-ㅇ 카)

: 치앙마이에 코끼리 보호센터가 있어요.

ปอนด์: ศูนย์อนุรักษ์ช้างเป็นอย่างไรบ้างครับ

(빠-ㄴ) (쑤-ㄴ 아누락 차-ㅇ 뽀 야-ㅇ 라이 바-ㅇ 크랍)

: 코끼리 보호센터는 어땠나요?

น้ำ: ช้างน่ารักทุกตัว ช้างทำให้ดิฉันมีความสุขค่ะ

(나-ㅁ) (차-ㅇ 나 락 툅 두-아, 차-ㅇ 탐 하이 디찬 미- 콰-ㅁ 속 카)

: 모든 코끼리가 귀여웠어요. 코끼리는 저를 행복하게 해요.

ดิฉันอยากอยู่ที่นั่นนาน ๆ

(디찬 야-ㅇ 유- 티-난 난나-ㄴ)

: 저는 그곳에 오래 오래 있고 싶어요.

ปอนด์: ผมจะแนะนำให้เพื่อน ๆ ไปดูช้างที่นั่น

(빠-ㄴ) (뽀 짜 내남 하이 프안 프-안 빠이 두- 차-ㅇ 티-난)

: 저는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코끼리를 보도록 소개할게요.

[EBS 초급 태국어]

〈복습하기〉

다음의 한국어를 보고 적절한 태국어 문장을 이야기해 봅시다.

- 몇 시에 마중가면 되나요?
- 저는 코끼리에게 바나나를 주었어요.
- 제가 잔을 깨뜨렸어요.
- 이 침대는 당신이 편안히 잠들게 할거예요.
- 아이들은 저를 웃게 만들어요.
- 저는 이곳에 오래 오래 있고 싶어요.
- 내일은 아마 많이 더울 테니, 얇으스름한 옷을 입고 오렴.
-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은 붉으스름하다.

< 태국의 코끼리 >



(출처: https://th.wikipedia.org/wiki/ไฟล์:Queen_Suriyothai_elephant_combat.jpg)

태국을 떠올릴 때 코끼리를 같이 연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물론 태국 및 그 주변 지역에 코끼리가 많이 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국 스스로도 코끼리를 매우 중요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이기도 하다. 비록 현대 태국의 국기는 빨강-흰색-파랑의 삼색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 왕조인 짜끄리 왕조의 2대 왕때부터 국왕의 배에 빨간 바탕에 흰 코끼리가 가운데 그려진 깃발을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해서, 약간의 디자인의 변화는 있었지만 1917년 이전까지도 빨간 바탕에 코끼리를 국기로 사용했었다.

태국이 코끼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힌두-브라만 교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흰 코끼리는 힌두-브라만교의 인드라신의 탈 것으로 신을 모시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태국 및 주변 국가에서는 흰 코끼리를 다른 코끼리 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 신화적인 믿음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는 전쟁에서 코끼리가 유용하게 사용되었다. 전장에서 삶과 죽음을 함께한 코끼리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끼리가 관광 공연이나 트레킹에 사용되면서 혹사되는 일이 빈번해졌고, 야생에서 사는 코끼리의 수도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코끼리들을 돌보기 위한 보호 센터, 양로원 등이 만들어 코끼리의 보호에도 힘쓰고 있다.